

지역별 테러 동향

아·태

○ 월성원전, 대구·경북 관계기관과 대드론 방어체계 공유

- 9.10 언론은 월성원전이 대구·경북지역 관계기관과 불법 드론 탐지·식별·무력화 등 대드론 방어체계를 공유하고, 국가중요시설 대상 불법 드론의 단계별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

※ 원전 대상 불법 드론 위협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탐지정보 공유체계를 강화하고, 상황별 합동대응 절차 점검을 정례적으로 할 필요 부언

○ 포천서 드론 공격·요격 '공방전'...민간 첨단기술 군 적용시험

- 9.10 언론은 국방부가 오는 16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'2026 국방 드론 기술전'을 개최하여 민·군이 개발한 첨단 드론의 비행 및 타격 능력과 레이저·AI 기반 대드론 요격체계를 실제 작전환경에서 시연할 계획이라고 보도

○ 서울, 테러경보 오늘 '경계'로 격상

- 9.13 언론은 서울 전역의 테러경보가 '경계' 단계로 격상됐으며, 관심·주의·경계·심각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단계고 13일부터 오는 17일 자정까지 제1차 한·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따른 조치다 보도

※ 제1차 한·중앙아시아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와 카자흐스탄·키르기스스탄·타지키스탄·투르크메니스탄·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이 참석한다 부언

○ 불법무기 적발 269건 '5년래 최대'...취득 경로 추적 필요

- 9.13 언론은 지난해 불법무기 적발 건수가 전년의 두배 가까이 늘며 최근 5년 중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자진신고와 함께 범죄 예방을 위해 취득 경로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

※ 유형별로 도검 111건, 총포 79건, 모의총포 54건, 조준경 9건, 분사기 7건, 화약 5건, 전자충격기와 실탄 각 2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언

○ 법원, 공항 테러 예고글 올린 30대에게 2천만원 배상 판결

- 9.14 언론은 인천국제공항 등 전국 5개 공항에 폭탄테러·흉기 살인을 예고한 30대*에게 법원이 공권력 낭비 및 수색 비용 등 손해배상금 2천277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

○ 필리핀, 무슬림 자치지역 선거기간에 총격전으로 18명 사상

- 9.14 언론은 필리핀 남부 무슬림 자치지역에서 평화협정 체결 12년 만에 첫 의회 선거가 실시됐으나, 선거 전날 분파 정당 간 총격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치는 등 긴장이 고조됐다고 보도

미 주

○ “AI로 몰래 생물무기 연구 정황”...앤스로픽, 의심사례 5건 차단

- 9.11 외신은 인공지능(AI) 기업 「앤스로픽」이 자사 AI 모델 ‘클로드’를 이용해 생물무기 개발 등을 시도하려던 의심 사례 5건을 차단했으며, 적발된 이용자들은 러시아, 중국, 이란 등 서비스가 제한된 지역 소속인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

※ 앤스로픽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반 연구소들이 자사 답변을 추출해 모델을 학습시키는 ‘증류’방식으로 기술 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

○ 美, ‘9·11’ 3년 전 “폭탄 실은 비행기로 공격”...CIA 기밀 71건 공개

- 9.12 언론은 미국 중앙정보국(CIA)이 ‘9·11테러’ 25년을 맞아 「오사마 빈라덴」과 「알카에다」가 참사 3년 전 미국 공격 가능성을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극비 정보자료 71건을 공개했다 보도

※ 현지 매체들은 이번 공개된 자료로 정부 당국이 공격 의도를 거둬 경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격 계획을 파악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평가했다 부언

○ 美 법무부 ‘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법원 통해 첫 명령..법원 설립 30년만

- 9.12 언론은 미국 법무부가 11일 ‘외국인 테러리스트 추방 법원’ 판결을 통해 테러 음모 계획중인 아들과 사위를 도운 혐의로 고발된 아프가니스탄 여성 「나지라 하지 자다」를 추방했다 보도

※ 「캐시 파텔」 연방수사국(FBI) 국장은 “이번 조치는 테러로부터 美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있어 역사적이고 매우 중요한 진전”이라 부언

역사 속 테러사건

2015년 캠프 바다버 공격

- '15. 9. 18. 「파키스탄 탈레반」(TTP) 조직원 14명이 파키스탄 카이버팍툰와주 바다버에 위치한 파키스탄 공군기지를 공격, 25~29명 사망
- 「TTP」는 파키스탄軍의 「자르브-에 아즈브 작전」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하였는데, 이전까지와 비교할 때 파키스탄軍에 엄청난 손실을 입혀 강도 면에서 전례 없는 공격으로 평가
 - 특히 「TTP」가 同 공격을 아프간에서 준비한 것으로 밝혀져, 「TTP」 소탕 문제를 놓고 아프간과 파키스탄의 갈등이 심화
 - ※ 아프간과 파키스탄은 지난 2025년에도 「TTP」 문제로 수일간 전쟁에 돌입
- 美 국무부는 “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의 손에 파키스탄보다 더 큰 고통을 겪는 나라는 없다”며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



테러 상식

< 파키스탄 탈레반 (TTP) >

- (결성) '07. 12 파키스탄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아프간 탈레반에서 분파, 13개 소규모 무장단체들을 연합하여 결성한 극단주의 테러단체('11.7 UN 지정)
- (활동지역) 파키스탄 카이버팍툰와주 및 아프간 쿤나르주 등 국경지대
- (활동수법) 카이버팍툰와주 州都 페샤와르 등 주요도시 폭탄테러 자행 및 아프간과 파키스탄 국경을 오가며 파키스탄軍을 주요 타겟으로 공격
- (주요테러) △'07.12 라왈핀디에서 前파키스탄 총리 암살 △'11.5 페샤와르 국경수비대 타깃 자폭테러 △'13.9 페샤와르에서 교회 대상 자폭테러 △'14.6 카라치市 진나국제공항 동시다발 공격 등

